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강건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2024년 7월 1일(월) 새벽 5:30 첫날맞이 월삭예배가 있습니다.

3. 맥추감사주일

2024년 7월 7일(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반년 동안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되기를 기원합니다.

4. 통일선교훈련원 전문 과정 집중강의(2차)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통일미래비전센터(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57-2 3층, 서울역)

5. 아하브코업 종강 예배 및 성부영 기도모임

일시 : 2024년 7월 2일(화) 오전 11시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6. 경기서지방회 감찰 순회예배 (세한교회)

일시 : 2024년 7월 4일(목) 오전 7시
장소 : 세한교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로 21(구운동, 세한교회)

7. 구역예배 일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금주 7월 4일(목) 오후 2시 임명순 사모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변경은 담임목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주일도 가능!)

8. 2024년 7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5.26 ~ 6.26)

7/8(월)-한인혜 자매님(-6.3) 7/18(목)-이판순 성도님(-6.13) 7/19(금)-박제연 집사
7/19(금)-문효은 자매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7/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통일선교훈련원 전문과정(2차)
07/02	아하브코업홈스쿨 모임총기예배 성부영 기도모임
07/03	자동차종합검사(그랜드스타렉스)
07/04	지방회 감찰 순회예배(세한교회)
07/07	맥추감사주일 (성찬예식)
07/08	이진운임민주 선교사 (귀국)
10.8/27	함영준안수인 선교사 (귀국)
07/14	교회교육주일(어린이주일학교)
07/21	청소년한신예배
07/28	교사한신예배 / 선교한신예배 카도쉬 성교육 세계관
29~31	어린이드림캠프(양파파인리조트)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탑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탑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분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부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일~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7권 26호 | 2024년 6월 30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여섯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2)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06/30 박제연 집사
- 07/07 이광근 안집사
- 07/14 임명자 집사
- 07/21 임명숙 집사
- 07/28 김혜숙 권사
- 08/04 정애자 권사
- 08/11 이가을 권찰
- 08/18 박제연 집사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집례자
※ 목 도	시편 30:4~5, 10~12 다 같 이
※ 찬 송 가	찬 5장 다 같 이 (이 천지간 만물들아)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24 시편 46편 다 같 이
찬 송 가	찬 393장 다 같 이 (오 신실하신 주)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small>교회학교 교육부장</small>
성경봉독	사무엘상 7:3~14 (신 59) 박제연 집사
광 고 한승훈 목사
말씀인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430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우 어린이)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김혜숙 문동잔임명자 장사라 한성결 한승훈임명순 한은총 한희락 / 오동영임명숙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오동영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정애자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감사헌금 :	김혜숙 이광근 박제연 이옥성 전복순 한승훈임명순 무명(2) / 오민자 김주형
전도헌금 :	성원슈퍼(무명1)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선교헌금 :	오동영 임명숙
후원헌금 :	경기서지방회 경기서지방회(전도부) 인양중앙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 선교비전 기도회

오후 1:00 경배와 찬양 아비찬양단
 성경봉독 사도행전 28:16-31 (신 8)
 말씀제목 복음이 로마, 세류동, 평양으로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통일기도 다 함 께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아비찬양단
 성경봉독 마가복음 5:21~43 (신 60)
 말씀제목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아비찬양단
 성경봉독 열왕기상 8:22~32 (구 934)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말씀인도 임명순 사모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아비찬양단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8:7~15 (신 294)
 말씀제목 부요한 믿음으로 부유를 누립니다

새 벽 기 도 회

새벽5:30	매일성경 새벽본문
30일일	행 28:16-31 로마도 복음을 전하다
1일월	렘 26:1~15 말씀앞에서는 용기
2일화	렘 26:16-24 말씀의 반응(회개 살인 도둑)
3일수	렘 27:1~11 예언의 삶이 야기되다
4일목	렘 27:12~22 잔치 장면 거짓의 경계
5일금	렘 28:1~18 참예과 거짓 예언
6일토	렘 29:1~14 슬픈 포로 생활
7일일	렘 29:15~22 진실과 거짓, 도성유지하기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⑧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어떤 말이며 어떤 의미? (왕상 2:2~3)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 ⑨ 다윗의 죽음 이후 솔로몬 집권 초기의 이스라엘의 정세는 어떠했나요? (왕상 2:11~12)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십 년이라 헤브론에서 ()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
- ⑩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위 즉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자신의 힘으로 역모를 꾸미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계기는? (왕상 2:17)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을 내게 주어 ()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라
- ⑪ 뉘 땅의 아히멜렉의 후손으로 다윗을 따라 통일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큰 공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에 참가하였다가 추방당한 제사장은? (왕상 2:26~27)
 왕이 제사장 ()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와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을 쫓아내어 여호와와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 ⑫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왕상 3:3~5)
 솔로몬이 ()하고 그의 아버지 ()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
- ⑬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신 이유는? (왕상 3:11~13)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와 ()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 ⑭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는 사건의 판결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왕상 3:28)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차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정수정 목사(예성) 선한총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오주교훈홈스쿨) 이재우 재학자 홈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모로코 선교사 안사랑선교사 모로코 캄피온 파송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선교사 아진운 선교사 임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인터콤 파송 평신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 고성 총회 향촌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성경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	---	---	--	---

- 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 아무리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왕상 1:1)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 ② 다윗이 늙고 대를 이을 솔로몬이 아직 유약한 때를 틈타 왕위 찬탈을 노렸던 왕자는 누구 인가요? (왕상 1:5~6)
그 때에 학깃의 아들 ()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이 없었더라
- ③ 위기의 때 살마리를 풀아가는 기준으로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가 붙잡은 소망은? (왕상 1:13)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 ④ 하나님 앞에 세워진 솔로몬의 왕권 계승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때마침 보내준 하나님의 인물은? (왕상 1:22)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이 들어온지라
- 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운 이유와 그가 찾고 붙든 하나님의 성품은? (왕상 1:29~30)
왕이 이르되 ()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
- ⑥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간 곳과 함께한 인물과 행한 일은 어디인가요? (왕상 1:38~39)
제사장 ()과 선지자 ()과 여호야다의 아들 ()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빵을 가져다가 ()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 ⑦ 반역을 꿈꿨던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던 솔로몬의 처신은?(왕상 1:52~53)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 하였더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4)

성경은 아름다운 대화를 만들어가는 비결에 대해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약 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 둘째, 서두르지 말고 깊이 생각한 뒤 대답합니다. (잠 29:20)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 셋째, 사랑을 담아 진실하게 말합니다. (골 3:9~10)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 넷째, 의견을 전달할 때 언성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롬 13:13~14)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 다섯째,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엡 4:26~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 여섯째,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똑같이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벧전 2: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 일곱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야 합니다. (살전 5: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힘들어도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통하고, 뜻을 합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참된 교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가	찬 182장	다 같이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성경봉독	열왕기상 8:22~32 (구 934)	다함께/윤독
참 기도의 요건		
말씀인도	임명순 사모
합심기도	다 같이
헌금찬양	찬 361장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들어가는 말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과 독특성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라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성전 봉헌의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22).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와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먼저 간구합니다(30). 하나님의 공의(31)와 정의(32)가 실현되길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해 아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 한다고 해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바른 교훈과 모범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이런 요구를 했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눅 11:1).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할 참 기도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부정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소통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성전 완공을 이루어주신 하나님’(15~21), ‘다윗 왕조의 존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23~26),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27~28),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30), ‘다양한 일곱 가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책임져주시는 하나님’(51~52)입니다. 그러니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라고(23)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서서 기도하다가 도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몸은 백성을 향하고 있지만 손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높이 펴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듯 기도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드리는 태도가 기도의 첫째 요건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겸손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언약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다윗 왕조와 연결합니다(25~26). 과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번영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다윗 언약은 죄 지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연결이 됩니다(창 3:15).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사 11:10, 계 11:15).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는데,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취하십니다(사 9:7).

둘째, 소통하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의 막힘없는 소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30). 솔로몬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30). 성전의 공간을 신성시만한다거나, 성전 공간 안에 하나님을 모셔두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통과 사죄와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하고 성결한 소통과 반응이며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넓혀가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32).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는 사법 정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주께서 판결해주시길 구할 때,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고 구합니다. 성전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만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 의와 불의가 드러나는 법정과도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 담긴 기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정해야 합니다. 성전의 희생과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범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공의로운 사회를 갈망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사랑교회도 지금 사법 판단이 왜곡되어 사회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법기관과 법조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결론

말씀을 통해 참 진리를 분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참 기도를 배우는 일에도 힘쓰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자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 성도들과 막힘없는 소통, 세상과도 막힘 없는 소통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성전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